제주를 대표하는 브랜드 It's JEJU
제주마씸

한라일보

漢拏日報 제9655호 제주의 대표 신문 ihalla.com 기사제보 750-2214 | 구독 750-2314 | 광고 750-2828 | 2022년 7월 13일 수요일(음력 6월 15일)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에메랄드빛 바다 위서 즐기는 카약 12일 제주시 애월읍 한담 해변을 찾은 관광객들이 투명카약을 타고 제주의 푸른 바다를 누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강희만기자

위법 논란 오등봉공원 사업 결국 감사원에

제주도, 오영훈 도정 출범 12일 만에 공익감사 청구
감사원, 서면·실지 조사 후 필요 시 감사 여부 결정
"비공개 검토 지시·절차적 위법성 등 논란 해소 기대"

각종 특혜 의혹과 위법 논란이 일고 있는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다만 제주도는 현재 '사업 중단'을 목적으로 진행 중인 소송과는 결이 다르다며, 감사 청구의 주 목적은 '원활한 사업 추진'에 있다고 선을 그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2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4조에 의거, 이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이번 감사 청구 목적에 대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자 선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 논란을 가리는 등 사업에 대한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고, 도민 신뢰 확보 이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도시공원 일몰 기한이 만료된 제주시 오등봉 근린공원 부지 76만4863㎡에 1630세대 규모의 지하2층·지상15층 아파트를 건설하고, 나머지 부지는 공원시설로 조성해 기부채납한다는 내용의 사업이다. 사업 시행자는 제주시와 호반건설의 특수목적법인인 오등봉아트파크다.

이 사업은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주지사 재임 기간에 추진했던 사업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해 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특혜 의혹과 함께 절차적 문제점이 제기되며 소송까지 이어져 왔다.

제주자치도는 이번 감사 청구는 오등봉공원 사업에 대해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해 진행 중인 소송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제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 등 284명은 제주시를 상대로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 현재 진행 중에 있다. 해당 소송은 지난 5월 31일 1차 변론에 이어 오는 19일 2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

제주도는 12일 브리핑을 통해 감사원에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상국기자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이번 제주도의 감사 청구는 소송에서 제기된 사항과는 별개"라며 "소송은 민간특례사업 요건 미충족 및 절차 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내용이지만, 제주도는 '업무 처리 과정의 적정성'을 다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자치도는 또 이번 감사 청구가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점도 분명히 했다.

허 국장은 "감사원 감사 청구와 사업 중단과는 관련이 없다"며 "내년 1월 공원 시설 착공, 내년 6월 주택 시설 착공 등 2025년 12월까지는 모든 사업이 마무리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제주자치도는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 ▷2016년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불수용 이후 재추진 이유 적정성 ▷민간특례사업 추진 시 비공개 검토 지시 적정성 ▷민간특례사업 지침 변경 사유 적정성 ▷민간특례사업 수익률 8.91% 적절성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 적정성 ▷사업자 선정 및 협약체결 등 업무처리 전반에 대해 위법성 등의 여부를 판가름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익감사 청구가 접수되면 감사원은 서면조사나 실지 조사를 한 후 감사가 필요한 경우 소관 사무차장 등이 결정하거나 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제주 코로나19 잠정집계 12일 <17시 기준>
신규 738
누적 24만3817

집행부-의회 자료제출 방식 신경전

제주도 "도의회, 자료제출 협조로 공식 요구해야"
도의회 "의원 길들이나… 의정활동 제한될 수 있어"

제주도의회 의원들과 제주도 간 '자료요청·제출' 방식을 두고 신경전이 벌어졌다. 제주도가 자료 제출 요청 시 공문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요구 해달라고 하자, 의원들은 의정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면 반발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12일 제407회 임시회 중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제주도가 보내온 '도의회 서류제출 요구 관련 협조요청' 문서를 문제 삼았다. 문서에는 비공식적 자료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이정엽 의원(국민의힘, 대륜동)은 "12대 의원들을 길들이려고 하는 것이냐"며 "의정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데 '문서로 요구하고 답하라'는 내용이다. 의원들에게 자료제출 요구권이 있는데 이런 것을 들이밀면 활동을 제한시키는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강철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을)도 "도에서 급하다고 해서 회기도 줄였다"면서 "법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천읍)은 "자료를 정리해서 보내달라는 것도 아니고 요구하는 자료도 협조 안 해주면 (의회)기관의 역할을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공식적·비공식적 의회의 요구 자료에 대해 집행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원님들의 지적도 일리가 있다. 일단 시행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겠다"고 답했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novita
A KOHLER COMPANY

신제품부터 스테디셀러까지

노비타 비데
여름맞이 기획전

2022. 07. 13 - 08. 31 무료설치 | 비데 필터 증정(2개)

novita 노비타 제주점 (구.제민일보 맞은편)
신광로터리 ● 빕스 ● 요양병원 신제주로터리▼ 마리나사거리 ▲공항 ● 마리나호텔

구입 문의 | 제주총판 064-758-0991 주소 : 제주시 연삼로 17

살균 99% 01 살균비데 BD-H700H0

#매일자동살균
#3가지 수류
#3D무브
#강력방수
5만원 할인
419,000
369,000

02 3년무상A/S BD-AFE50N

#생활 방수
#어린이 기능
#자동노즐세척
7만원 할인
299,000
229,000

03 클린비데 BD-C300E0

#미스트세정
#셀프위생기능
#강력방수
2만원 할인
275,000
255,000

NEW 노즐교체비데 BD-C500E0

#셀프노즐교체
#3D무브
#강력방수

헬케어프리미어 세트 증정
299,000